

2019년도 고려달전요양병원 신년 시무식 개최

전직원이 모여 새해 다짐과 함께 업무개시



지난 2019년 1월 2일 전체 직원이 모인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병원장님의 신년사를 듣고 다과와 덕담을 나눈 후 풍선에 각자의 새해소망을 적은 후 정원에 모여 하늘로 날려 보내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후 직원들 몇 명이 올해의 동물(띠) 가면을 쓴 후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방문하여 인사드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올해는 돼지가면을 쓰고 어르신들을 방문하였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직원들의 방문을 즐거워하셨다. 이는 우리 병원의 독특한 행사로, 매해 그 해의 동물 가면을 쓰고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있다. 매해 어르신들도 어떤 동물 가면을 쓰고 기념사진을 찍을지 기대하신다. 올해도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

2019년도 기해년 병원장님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병원장 이호근

병원가족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병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병원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병원 가족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올해는 우리 병원의 오랜 숙원인, 첨단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으로 구성돼 재활과 암 요양으로 진료하는 고려대련요양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 가족 여러분이 각 분야별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요양병원으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고려대련요양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병원 가족 각자가 홍보대사가 되어 “고려의 주인은 우리 병원을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며칠 후 개원하는 고려대련요양병원에 우리 모두 성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려달전요양병원도 작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올해는 고려달전요양병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들과 병원 가족들이 보다 쾌적하고 나은 환경에서 진료를 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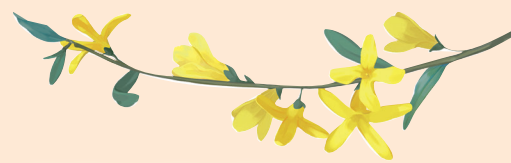
2019년 황금돼지 해에도 병원 가족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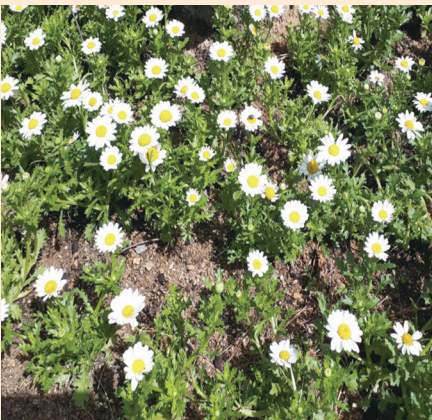
“직원들과 어르신들에게
새해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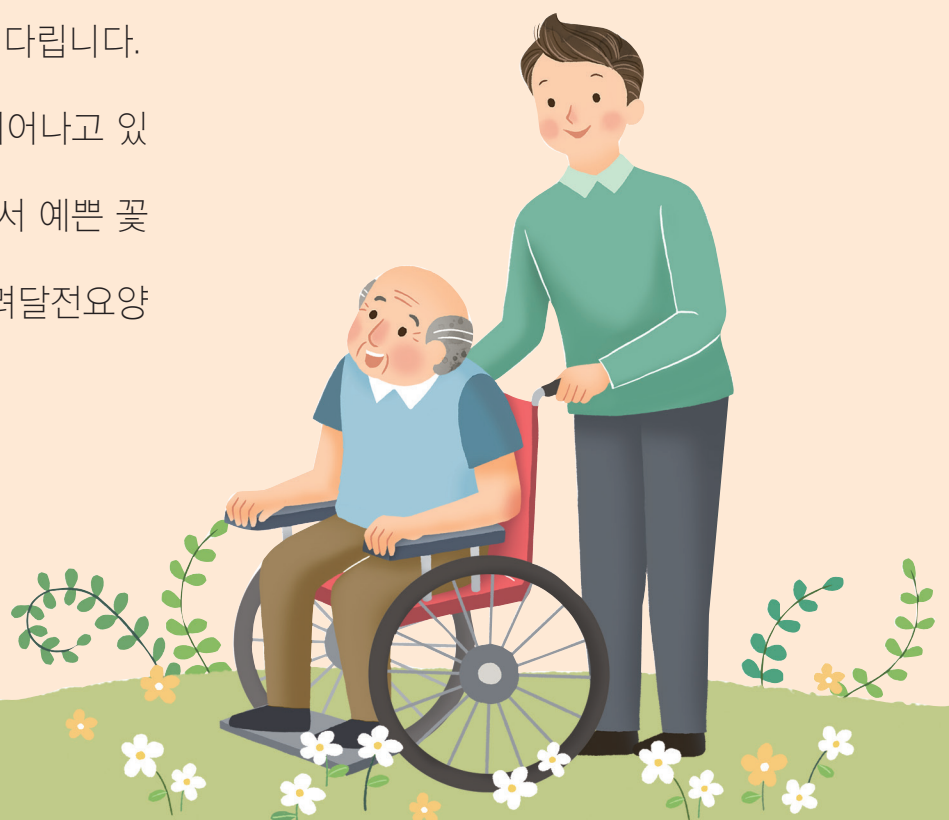
고려달전요양병원에 찾아온 봄 소식

고려달전요양병원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고려달전요양병원 정원에 예쁘게 단장을 하고 봄을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 이꽃저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우리 어르신들도 정원에 나오셔서 예쁜 꽃을 감상하시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보호자 분들도 고려달전요양병원으로 꽃놀이하러 오세요.



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처리비 폭등



의료폐기물 처리비관련 뉴스 [자료화면: MBC 제공]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었다.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포화상태 이기에 의료폐기물업체에서는 처리단가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단가가 1년 만에 무려 2배 넘게 올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은 한 달동안 최대 8톤 분량의 일회용 기저귀를 배출하는데 지난해 폐기물 처리업체가 기습적으로 처리단가를 2배 이상 인상하면서 월 220만 원이던 처리비용이 무려 450만원으로 꺾충 뛰었고, 다른 한 요양병원은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불과 2년 만에 kg당 700 원에서 1450원으로 두 배 올랐다"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산업폐기물보다 3배 가량 비싸다"고 말했다.

고려달전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최근 병상간격 조절을 시행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41병상에서 206병상으로 줄어들게 되어 경영상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더욱 경영이 힘겨워지게 되었다. 이는 고려달전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고려달전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 집 같이 내 가족같이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병원 이념하에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저귀 비용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고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비용은 기저귀 구입과 어르신들의 청결을 개선·유지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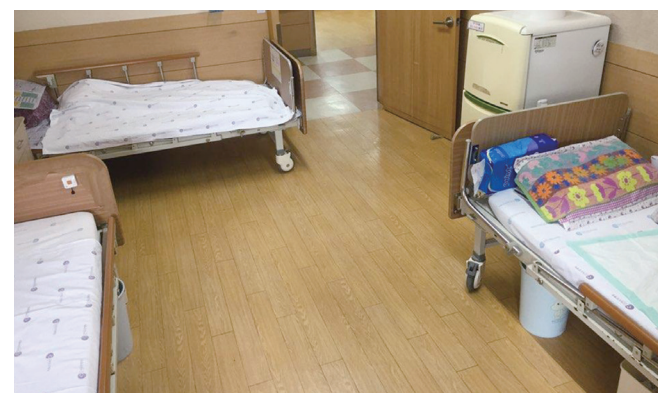
- 글 : 이동산 (행정실장)

침상간격 1m이상 넓어진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개정을 시행하면서...

본원(고려달전요양병원)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시설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병상간 간격(메트리스 프레임기준)이 1m 이상 되어야 함으로 병상 조절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각 병실의 병상(bed)이 줄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241병상에서 206병상으로 35병상이 줄어들게 되었다.

각 병실에 병상이 줄어들면서 어르신의 주변이 이전에 비해 환해졌다고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의 일관된 의견을 보였다.



2인실은 1인실로 5인실이 4인실로 6인실은 5인실로 8인실은 7인실로 그밖에도 집중관찰실에 병상이 줄었다. 병상이 줄면서 환자분들을 전원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병원은 다행히 고려대련요양병원(재활센터, 암케어센터 운영)의 개원으로 인하여 그 곳으로 전원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병원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줄어 경영에 압박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언제나 처음처럼, 내 집같이 내 가족같이 어르신들을 모시겠다는 병원의 신념은 변함이 없게 더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내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의 의료법 개정으로 우리병원 뿐 만 아니라 전국의 요양병원이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만큼 우리병원은 병원장님을 필두로 하여 위기를 기회로 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르신들께 서비스의 질 향상과 친절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답이라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결의를 하였다.

고려달전요양병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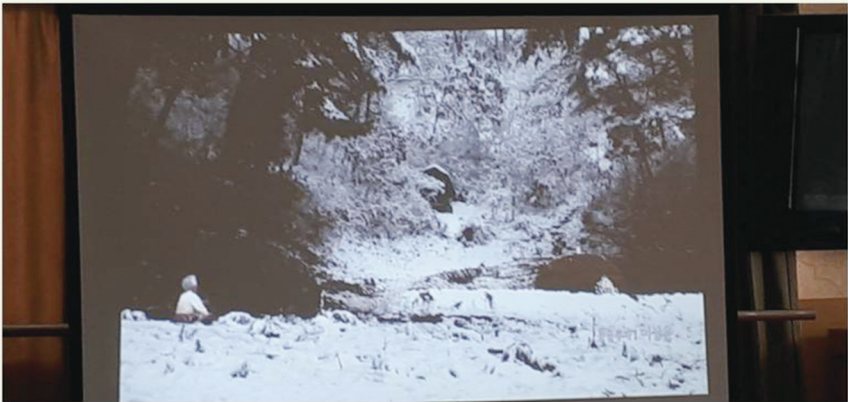
2019년 1월 2일 고려달전요양병원 시무식

전직원과 함께 2019년 맞이 시무식을 주최하였습니다. 다함께 올 한해 다짐을 하며 한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0일 고전무용 프로그램

어르신들과 함께 3층 강당에서 고전무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영화감상 프로그램

어르신들과 함께 "님아 그강을 건너지 마오" 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2월 1일 미술치료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여가활용 및 인지재활훈련의 일환으로 그림 색칠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요리 프로그램

기억력 향상과 인지기능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봄을 맞이하여 봄냉이 캐서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3월 13일 국악 프로그램

민속공연은 전통 복장을 갖추고 머리도 단장을 하고 어르신들께 신명나는 국악음악 선율을 전해주셨습니다.



2019년 3월 26일 파전행사

봄맞이 고려파전행사를 병원 야외정원 정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7일 기체조 프로그램

기체조 강사분들께서 고려달전요양병원에 방문하시어 어르신들께 다양한 기체조를 선보이셨습니다.

만성통증의 원인과 치료방안



고려달전요양병원
채 종 한 진료과장

통증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의 하나이며 거의 대부분이 병적인 상태를 반영한다. 통증을 정의해보면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감각적 정서적으로 불유쾌한 경험”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통증은 잠재적인 손상(예: 뜨거운 물체에 접촉하는 순간에 느끼는 것과 같은 일차적 통증으로 개체는 빠른 반사를 통해 다가오는 더 큰 손상을 방지한다.)이라 실질적인 손상(예: 뜨거운 불에 일정시간 접촉하여 화상에 의한 신체조직의 손상이 일어난 경우)과 같은 신체의 이상 상태에 대하여 더 이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의 기능을 하는 중요한 방어 기전의 일종이기도 한다.

통증은 방어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역할 뒤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초신경계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통증이 격심해지고 만성화 하게 되면 통증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 되어 환자는 불안, 절망감 등의 정신적 문제와 더불어 식욕부진, 영양장애 그리고 전신 상태의 악화 등을 겪을 수 있다. 통증은 객관적이고 생리적인 감각의 측면과 주관적이고 정신적, 감정적인 면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그 반응이나 태도가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용인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은 통증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 있고, 똑같은 사람에서의 반응도 다를 수 있어 객관적인 척도를 만들기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통증치료는 어느 단일 분과의 범주를 벗어나 여러 분과의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통증을 나눠보면 급성 통증과 만성통증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통증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나 질환이 생겨서 생기는 통증 등에 의해 생긴 통증이다. 급성통증은 질환과 동반되어 오는 경우가 많고, 통증 자체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성통증에는 외상이나 수술 등의 급성통증의 원인이 소실된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에 의한 통증, 대사성 질환에 의한 통증, 삼차 신경통과 같이 주기적으로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 등이 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통증으로는 만성요통, 편두통,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 근근막통증 증후군 등이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에게 만성통증 증후군으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있다.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약25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즉 성인 10명당 1명꼴로 만성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통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병을 키우거나 노화로 인한 통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만성통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만성통증에서 벗어나려면 정확한 진단, 발 빠른 치료, 몸과 마음을 어우르는 통합 관리 이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과거에는 통증을 방치하거나 약물(진통제)을 과다 복용하여 약물 의존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지금은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성 통증을 치료하고 있다. 그 방법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 치료, 한방요법에 더해 병의 원인에 따라 침습적인 방법과 비침습적 방법인 신경차단술, 프롤로 주사요법, 고주파 열 응고법 등 많은 치료 방법들이 고안돼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초기에 치료 받으면 만성 통증의 악순환적 고리를 끊어 생활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많은 만성 통증 환자들은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주위 분들의 격려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힘들 보태주는게 가장 현명한 치료법의 하나임을 주지하고,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고려달전요양병원에서 고려파전행사 진행

봄맞이 고려파전행사 성황리 열려 매년 어르신들께 먹거리 볼거리 제공



고려달전요양병원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겨우내 자란 쪽파(자청파)를 가지고 파전행사를 주최하였다. 2019년 3월 25-26일 이틀 동안 다듬고 파전을 구워서 입원하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행사이다. 부드러운 파로 각종 해산물을 듬뿍 갈아서 만든 파전은 모든 어르신들께서 맛있다고 잘 드셨으며 수고한 직원들에게 칭찬이 자자하셨다.

해마다 실시하는 연례행사로서 봄이 되면 이날을 기다리시며 언제 파전을 굽느냐고 물으시곤 하신다. 직원들이 구운 파전을 쫄쫄째 드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셨다. 내년에도 맛있게 구워드리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였다.



고려파전행사 현수막은 언제나 화려하다. 행사에 앞서 파다듬기부터 시작했다. 쪽파의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부드러운 감촉을 어르신들도 함께 느끼신다. 통통하게 물이 오른 파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예전 집에서 하시던 것을 기억하시며 말씀도 나누시고 즐거워하셨다.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고 파전 반죽이 완성되었다. 여기엔 계란, 오징어, 새우, 열합 등을 갈아서 듬뿍 넣었다. 맛있어 보이는 만큼 정말 맛있었다.

일도 놀이식으로 직원들이 자청하여 해주었다. 어르신께 대접하는 손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어르신들은 내년에도 진행될 파전행사를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신다.



- 글: 서울해(사회복지사)

포항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려달전요양병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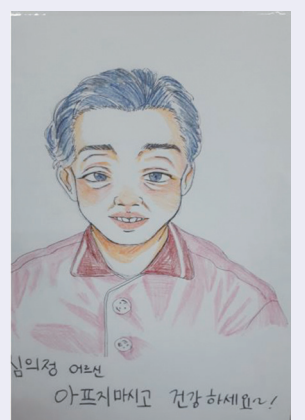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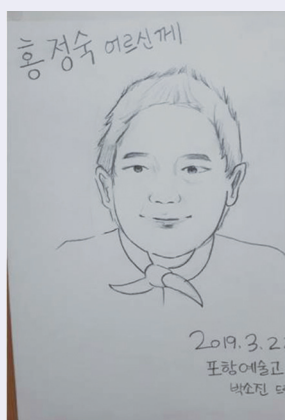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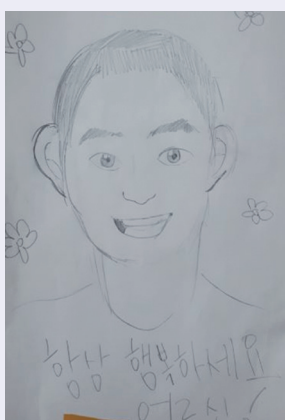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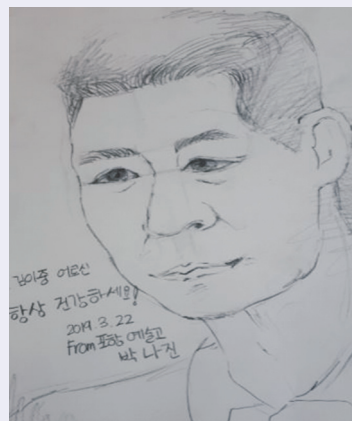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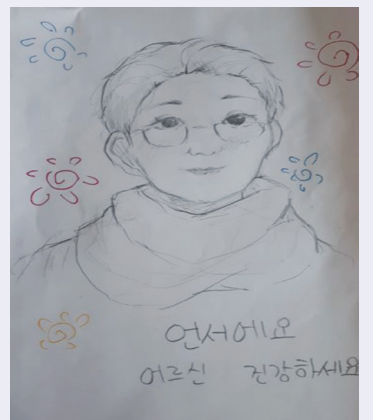
어르신들 초상화 그리기 봉사활동 실시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



포항예술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고려달전요양병원을 방문하였다. 방문한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 어르신들에게 초상화를 그려 드렸다. 처음에는 숙스럽다고 안 그리신다고 하시더니 한 분이 그려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리니 많은 어르신께서 호응을 해주셔서 초상화 그리기가 활기를 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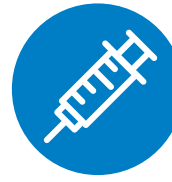
젊은 시절에는 예뻐다고 서로 의지 대시며 좋아하셨으며 함박 웃음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께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 글 : 서을해 (사회복지사)



고려대련요양병원 개원

재활, 암재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2019년 3월 9일(토) 오전 11시 고려대련요양병원 개원식이 고려대련요양병원 1층 야외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재 국회의원, 뿌리회 원로회 이성환 회장, 포항의사회 우창호 회장, 포항시약사회 김진 회장, 해맞이 이석수 회장, 파크랜드 박성동 사장, 이상근 시의원, 차동찬 시의원,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김영선 교수 등 3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은 경북 최대규모의 재활센터와 암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요양병원을 넘어 치유(Cure)와 돌봄(Care)의 의술을 펼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1984년 고려산부인과 의원으로 시작한 고려병원은 2007년 9월 고령화시대에 맞춰 고려요양병원을 개원했으며, 2011년 10월 의료법인 호준의료재단을 설립해 포항고려요양병원을 개원했다. 이어 올해 포항고려요양병원이 재활센터, 암케어센터, 외상케어센터, 한방클리닉, 구강클리닉 3개의 센터와 2개의 클리닉을 운영하는 고려대련요양병원으로 새로이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은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환자들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중심적인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접근성도 좋아 포항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포항역사와 대구~포항 톨게이트에서도 가깝습니다. 100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으로 입원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센터는 300평 이상으로 경북 최대규모의 넓은 치료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ADL실, 언어치료실, 열전기치료실, 특수치료실을 한 공간에 위치시켜 환자의 치료 동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치료사들 또한 보바스 치료, PNF, 중추신경계발달치료(NDT) 등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전문 물리치료사로 꾸려져 이들이 환자와 1:1로 집중적인 운동을 시행한다. 탈부하보행훈련기, 워킹레일, 에르고미터, 코트라스 등 최신식 의료장비 역시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암케어센터의 경우 면역치료와 고주파온열치료를 통해 암환자가 이른시일 안에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케어센터는 고주파온열치료기, 고압산소치료기, 전신온열치료기, 통증치료기 등 암환자에게 맞는 통합면역암치료를 제공하며, 편백나무로 제작한 족욕실과 건식사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재활치료실(도수치료실) 등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를 가봐도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은 포항을 대표하는 재활치료와 암케어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병원 임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환자를 위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29일 고려대련요양병원 월례회

고려대련요양병원 전직원과 함께 1월 월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합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9일 세명기독병원 협력병원 체결

고려대련요양병원과 세명기독병원이 환자분들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2월 7일 다학제 컨퍼런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파트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학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남로타리 직장주회 개최

고려대련요양병원 석란홀(대강당)에서 포항 남로타리 직장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1일 뇌병변장애인 협회 MOU체결

고려대련요양병원은 뇌병변장애인 경북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려대련요양병원에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장 담그는 날

100% 국산콩으로 고려대련요양병원에서는 환자분들께 제공할 장을 직접 담급니다. 언제나 건강한 음식을 제공 드립니다.



2019년 3월 26일 좋은선린병원 협력병원 체결

고려대련요양병원과 좋은선린병원이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양 병원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4월 3일 컵화분 만들기 프로그램

식목일을 맞이하여 일회용 컵으로 개인 미니 화분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려달전요양병원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189 / Tel : 054-262-2022

포털 검색창에 **고려요양병원** 을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 <http://www.goryeoh.com>

블 로 그 : <http://blog.naver.com/goryoscs>

고려대련요양병원(외래진료 가능)



재활센터, 암케어센터, 외상케어센터, 한방클리닉 운영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18-12 / Tel : 054-241-1011

포털 검색창에 **고려대련요양병원** 을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 <http://www.goryomcc.com>

블 로 그 : <http://blog.naver.com/goryomcc>